

1.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1)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과 교훈을 전하신 책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믿음과 실패, 순종과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을 먼저 돌보겠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린 선택은 서로 달랐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이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 인물을 평가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의 믿음과 실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성경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둘째, 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 붙잡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한 문장이 아니라 앞뒤 문맥과 이야기 전체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함께 읽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읽을 때 비로소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말씀은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두 가지 원칙은 성경 읽기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빚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 글에서는 성경을 더욱 깊이 읽기 위한 세 가지 원칙, 공동체와 함께 읽기,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읽기, 그리고 기도하며 읽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읽어 오셨나요? (예: Daily 묵상집 구절 위주, 성경 통독, 좋아하는 구절 반복 등)

→ _____

- 글에서는 제자들의 부르심 이야기를 예로 들며, 말씀 앞에서의 다양한 반응(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름 vs 근심하며 돌아섬)을 보여줍니다. 최근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 내가 그 인물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평소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붙잡아 읽는 편인가요, 아니면 문맥과 전체 흐름을 함께 살피는 편인가요? 한 구절을 오해하거나 내 삶의 필요에 맞춰 '아전인수'격으로 붙잡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를 문맥 없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요술램프로 이해했던 경험 등)

→ _____

- 성경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삶의 정황을 통해 나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응답의 걸음'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며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나누어 보세요.(예: 말씀을 읽기 전 기도하기, 본문의 앞뒤 문맥 함께 읽기,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 등)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 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